

16세기 후반 시대상의 전변과 일탈의 문예미학

— 許筠의 前五子를 중심으로 —*

신 영 주**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시대 현실의 굴곡과 문예로의 |
| II. 한양 도성의 도시적 풍물과
신경향 | 낭만적 일탈-許筠과 前五子 |
|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선조 시기 한양 도성에서 있었던 문예 분위기의 성장 및 허균의 동인 가운데 前五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의 활동이 이 시기 문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역동적 문예 활동 양상의 특징적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기존의 문단을 구성하고 있던 인적 구성과는 달리 서얼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의 아웃사이더들이 무리를 형성하여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존 관념에 저항하면서 풍류와 일탈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예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들의 활동 양상을 정치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향후의 활발한 연구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일탈, 허균, 권필, 이안눌, 조위한

* 이 논문은 201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 zuowang@hanmail.net

I. 머리말

16세기 후반 宣祖 시기에 활동하던 문인 지식인들에게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주지하다시피 임란 이전 시기에 성리학적 세계관이 조선의 국가적 시대정신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성리학적 세계관이 문학과 예술의 미학적 경계를 규정하고 강제하면서 문예 활동의 양상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다. 성리학적 세계관은 그 경건성이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흔들리지 않는 듯하던니 16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차츰 이완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발견되고 있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란을 겪는 사이에 더욱 가속화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명말 문예 저작의 유입과 진한고문과의 성립, 唐詩의 유행과 전문 작가군의 형성, 詩書畫琴에 몰입하는 마니아의 등장 등은 이런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점들이다.

기성의 억압적인 규범에 의해 왜곡되어 있었던 문예에 대한 시선의 존재와 이에 대한 반동이 상호 충돌하는 부분,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여러 내적 요인, 이런 총체적 변화에 의해 전변하는 시대상의 핵심을 포착하여 분석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변화를 계기로 등장한 일군의 문예 동인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외적으로 한양의 도시적 공간 안에서 성장하는 문예 취의 흐름 속에서 문예에 뛰어난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였던 바, 허균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던 문인 집단이 그 사이에서 독특하고 역동적인 문예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공유하면서 강한 연대를 보여주었는데, 허균은 이들 가운데 10인을 前五子와 後五子로 나누어 명명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한양 도성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문예 분위기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허균의

동인들 중에 前五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한양 도성의 도시적 풍물과 신경향

16세기 후반에 수도 한양에서 도시적 풍물과 풍조가 크게 성행하였다. 물론 전란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어 가던 17세 이후로 이런 풍조가 크게 성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이미 임진란 이전에 한양 도성 안에 향락의 풍조가 만연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몇몇 기록이 남아 있다.¹⁾ 도리어 도회지적 풍조를 한참 겪었던 17세기 이후에 비해 16세기 말의 새로운 풍조 속에서 문인 지식인들은 더욱 큰 해방감을 느꼈을 수 있고, 또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적용되지도 못한 변화된 사회 풍조 속에서 말 못할 아픔과 방황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였다.

趙繼韓(1572-1631)이 남긴 칠언고시 「漢陽俠少行」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²⁾ 시집의 편차를 고려할 때 이 시가 지어진 시기는 「謁聖行」을 지은 계축년(1613) 이후가 되지만,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기는 임진란 이전이다. 조찬한은 이 시의 서문에서 나씨 형제 가운데 막내인 守讓氏를 任實에서 만나 지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³⁾

漢陽昇平二百祀	한양의 2백년 태평세월
都人士女殷且美	도성 사녀들 북적거리고 화려하니
家家鍾鼎食如蟻	집집마다 고량진미 푸짐하고
明粧耀日喧歌吹	깨끗이 단장하고 歌吹 소리 이어지네.

조찬한의 눈에 비친 왜란이 발생하기 이전의 한양의 풍경은 유흥의

-
- 1) 曹友仁, 『頤齋集』 卷1, 「聽笛歌」; 趙繼韓, 『玄洲集』 卷2, 「漢陽俠少行, 走贈羅守讓」.
 - 2) 임형택, 「18, 19세기 예술사의 성격」,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 3) 趙繼韓, 『玄洲集』 卷2, 「漢陽俠少行, 走贈羅守讓」.

분위기가 물씬한 도회적 모습이다. 조선이 나라를 세운 지 2백여 년이 흐른 16세기 후반의 일이다. 한양 도성이 남녀들로 북적거리고 변화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집집마다 기름진 고량진미를 푸짐하게 차려놓을 수 있을 만큼 삶은 풍요로워졌고, 화사한 의복을 차려입고서 노래 부르고 연주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문화적 소비도 풍성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도시화된 이런 한양 도성 안에서 생활하던 각양의 도시민들이 존재하였을 것인데, 도성 안 저자거리를 종횡하였을 헻객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三門之外稱俠窟	삼문 밖의 헻객 소굴에서
三鄭五羅唯其最	세 정씨와 다섯 나씨가 으뜸이니
吐氣如虹聲若雷	무지개 같은 기상에 우레 목소리
大袴緩帶相徘徊	큰 바지에 느슨하게 띠 두르고 서성거리네.

삼문 밖에 있는 헻객들이 모여드는 공간에서 세 사람의 鄭氏와 다섯 사람의 羅氏가 가장 으뜸이라고 한다. 다섯 羅氏는 곧 이 시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羅守讓의 다섯 형제를 이른다. 마치 무지개처럼 빛을 뿜는 기상과 우레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험령한 바지에 느슨하게 허리띠를 두르고서 서로 어울려 저자거리를 서성거리고 다니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 속에서 한양 도성의 짓궂은 헻객들의 모습이 떠오르면 서도, 그 위로 변화한 도성에 존재하던 자유로운 여러 인물 군상들의 존재가 중첩되어 보이기도 한다.

또한 “남의 집 열 길 담장 뛰어넘고, 성곽을 평지처럼 오르내리며, 공후 집안 절세미인 훔쳐냄이, 개처럼 호백구 훔친 맹상군 식객보다 훌륭하구나.”⁴⁾라거나 “매일같이 개와 돼지를 잡고, 춘풍이 불 때나 달 밝은 가을 밤, 세시 명절이면 날랜 기운 더하여, 말고삐 잡고 나란히 내달린다네.”⁵⁾

4) 趙繼韓, 『玄洲集』 卷2, 「漢陽俠少行, 走贈羅守讓」.

5) 趙繼韓, 『玄洲集』 卷2, 「漢陽俠少行, 走贈羅守讓」.

라고도 하였다. 한양 도성의 공간을 거침없이 오가면서 세시풍속과 좋은 시절을 즐기고 음주가무에 열을 내며 용력을 뽐내고 있는 한량들의 모습 속에서 중세의 억압이나 시대의 그들은 존재감이 미약해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런 한양 도성의 모습은 이후 왜란을 겪으면서 크게 흔들리게 된다.

一朝海寇蹙三京	왜구가 하루아침에 三京에 들이닥쳐
漢陽文物煙塵腥	한양 문물이 잿더미로 변하고
豪華任俠散如煙	화려하던 협객들 연기처럼 흩어져
飢寒流落湖州城	굶고 굶주려 떠돌다가 호남에 떨어졌으니
多豪多俠十無一	그 많던 협객들 열에 하나 남지 않고
只有二羅飄如萍	나씨 두 사람만 부평초처럼 떠돈다네.

어느 날 갑자기 왜적이 들이닥쳐 변화하던 한양 도성의 문물이 잿더미로 변하였음은 불행하게도 16세기 후반의 조선 사회를 온통 뒤흔든 임진란을 이른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사가 갈리고 이별하여 유리걸식하다가 각지를 떠돌 수밖에 없었다. 이뿐 아니라 내로라하던 한양의 협객들도 각지로 흩어지면서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한양 시정의 변화한 풍경과 그 나뉠의 질서가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물론 왜란 이전의 분위기가 전란이 수습되어가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여 점차 다시 한양의 도회적 분위기가 물씬하게 팽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갑진만록』에 실린 洪汝諱(1547-1609)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당시 한양 도성의 도회지적 풍경을 엿볼 수 있다.

판서 홍여순은 왜란 전에 동대문 안쪽에 새 집을 지어 화훼를 많이 심었으며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어 매우 맑고 깨끗하였다. 왜란 뒤에 옛 집터에 집을 다시 지으면서 이전의 규모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화훼와 나무와 바위 같은 玩物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갖추려고 욕심을 내었다. 책상과 자리 사이에 티끌한 점도 없었고 음식과 의복도 몹시 사치스러웠다.⁶⁾

대북의 영수로 불리던 홍여순은 정치적 공격으로 탄핵을 받아 진도로 귀양을 갔다가 1년이 지난 1609년에 세상을 떠나는 불운을 겪었던 인물이다. 『갑진만록』은 당시 그의 정적이었던 尹國馨(1543-1611)의 필치로 남겨진 기록으로 탐탁지 않은 적대적 시선이 홍여순의 모습 위에 덧대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⁶⁾ 이런 점을 감안하고 생각해보다도 홍여순이 자신의 집을 花卉와 木石으로 화려하게 꾸미었고 음식과 의복을 사치스럽게 장만하였다는 것은 위의 조찬한의 기록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위의 기록은 당시에 이미 사치와 향락의 풍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頤齋 曹友仁의 「聽笛歌」에 그려진 한양 도성의 모습 역시 지극히 변화하여 사치와 逸樂이 물씬한 곳이었다.⁸⁾

長安自古盛繁華 장안은 예부터 지극히 변화로웠으니
 疊樹層楹開甲第 겹겹 높은 건물의 저택을 열어두고
 金樽芳燭綺羅筵 금 술잔에 화촉 밝힌 비단 자리 위로
 燕腰趙質相連袂 연나라 조나라 미녀들이 서로 이어졌었네
 此曲曾向此中吹 이 노래를 일찍이 이곳에서 불렀을 터인데
 豈知天地俄翻覆 어찌 천지가 금세 뒤집힐 줄 알았으랴⁹⁾

지금은 왜란으로 인해 천지가 뒤집힌 형편이 되었지만 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부귀한 집안에서는 으리으리한 건물에서 화촉을 밝히고 비단으로 장식한 연회 자리를 마련하여 미녀들의 歌舞를 즐기며 금 술잔을 기울였다고 한다. 위 시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자리에 참여하여 피리 연주를 뽐내면서 향락의 흥취를 절정으로 이끌곤 하였다고 회고한 것이다.

6) 尹國馨, 『甲辰漫錄』.

7) 『光海君日記』, 원년(1609) 2월 10일 기사 참조.

8) 임형택, 앞의 책.

9) 曹友仁, 『頤齋集』 卷1, 「聽笛歌」.

이 시를 작성한 시기는 1600년 여름 무렵이다. 조우인이 만력 경자년(1600) 여름에 泮邸에 있을 때에 친구인 趙子精이 방문하여 絲竹에 관하여 마음껏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가 피리의 고수 한사람을 소개해주었던 것이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泮宮의 남쪽 이웃 중에 피리를 부는 자가 있다. 예전에 長安의 제일류로서 許師 이후로 거의 그보다 나은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가 난리 통에 8,9년간 떠돌다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의 手法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 그대가 어찌 찾아가서 들어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조우인이 친구의 말을 흔쾌히 수락하여 그날 밤에 碧松亭 두둑으로 나가 홀연히 들려오는 淸圓하고 寥亮한 피리 소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에 시절을 느끼고 옛 일을 떠올리다가 시 한수를 완성해서 이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⁰⁾ 이를 통해 또한 당시에 한양 도성에 행락의 풍조가 물씬하던 중에 琴, 笛, 歌를 즐기는 풍류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을 것임을 엿볼 수 있다.

한양 도성은 이렇게 도회지로 변모하면서 문예 흥취가 고조되어 갔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예에 몰입하는 전문 작가 층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기존에 감지되지 못하였던 저층 문인들의 활약이 점차 의미 있게 성장하여 주류 문단의 내부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16세기 중반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도학에 밀려 소원해졌던 문예 욕구가 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한꺼번에 밖으로 폭발하였던 것이다. 이런 흐름은 목릉 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진전되어 문예에 심취한 문예지향형 인물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서얼 신분의 일군의 문인들이 문예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 목격된다. 특히 허균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주목을 요한다. 굵지 않은 사회적 시선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이들은 생활에서

10) 曹友仁, 『頤齋集』 卷1, 「聽笛歌」.

직면하는 좌절을 문예를 통해 해소하곤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그 성향이 과격하고 도발적이었다. 곧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문예를 통해 구현했던 것이다.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게 서열의 존재는 축은한 대상으로 여겨져 경우에 따라 허통의 은전이 주어졌으나, 이 또한 한시적인 조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시기 문예인들 가운데 허균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낭만적 일탈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문예를 매개로 동인으로서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었는데, 대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문예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던 측면이 있다. 타고난 재능의 자유로운 발산을 제약하는 신분적 굴레와 이성을 상실한 치열한 경쟁의 파란 속에 얽매어 신음하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처한 현실이었는데, 낭만적 문예 활동을 통해 이런 현실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하고자 꿈꾸었던 것이다.

이 시기 문예가 흥성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 이면에 공존하고 있는 불행한 시대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에너지가 일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삶의 방향성은 개인의 독특한 기질과 취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급격한 전환기에 해당하는 16세기 후반의 역동적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역설적 모습으로 이해된다. 당시의 특수한 시세 추이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 병리학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조 시기 문예계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의 하나로서 이들의 문예 활동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시대 현실의 굴곡과 문예로의 낭만적 일탈-許筠과 前五子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6세기 후반 한양 도성의 모습은 사치와 향락을 이미 경험하여 도회지적 풍조가 물씬한 것이었다. 바로 이 시기 16

세기 후반 조선 문단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인물로는 가장 먼저 허균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허균은 자신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시인 10인을 특별히 선별하여 前五子와 後五子로 명명한다. 이들은 문예 동인을 형성하여 한양 도성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허균은 이들 가운데 전오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나는 세상과 틀어져서 當路한 공경들과는 능히 사귀를 맺지 못하고 오직 薄藝로써, 문단의 同盟 두세 형제들에게 알아줌을 받았다. 그래서 밤낮으로 상종하여 혹은 수창하는 일로써, 혹은 답론하는 일로써 서로들 질차탁마하면서, 한 가로이 해를 마치곤 한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장 권필과 자민 이안눌과 지세 조위환과 나의 재종형 자하 허적과 소식적부터 친한 벗 여인 이재영이다. 이 다섯 사람은 문장이 모두 세상에 드물고 때에 궁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찌 문인의 結癖이 오래 곤고한 운명이란 말인가. 드디어 五子詩를 지어 이로써 풍아를 드날리고, 사귀는 정을 기술하여 때로 보고 스스로 위로하는 바이다. 그 차례는 연대별로 기록하고 문별로써 끝마쳤다.¹¹⁾

위에서 보듯이 前五子는 權鐔(1569-1612), 李安訥(1571-1637), 趙緯韓(1567-1649), 許筠(1563-1640), 李再榮(1567-1623)을 이른다. 이들은 허균과 문예로써 동맹이 되어 함께 상종하던 인물들로 밤낮으로 수창하고 답론하였다고 한다. 허균이 꼽은 後五子에는 鄭應運, 趙繼韓, 奇允獻, 任叔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더 포함되어 있었으나, 왜란을 겪는 사이에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¹²⁾

前五子와 後五子로 10인을 특정하고 있음은 이들이 일정한 성향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아직은 이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들이 모두 16세기 후반 선조 시대에 문예를 공유하며 함께 공유하던 문예 동인들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아울러 이들은 모두 當路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좌절을 겪었던 경험을 공유

11) 許筠, 『惺所覆韻稿』 卷2, 「病閑雜述·前五子詩」.

12) 許筠, 『惺所覆韻稿』 卷2, 「病閑雜述·後五子詩」.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의이거나 타의에 의해서 주류로부터 이탈하여 곤궁한 삶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에 드문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로써 울울한 심사를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이 동질감을 형성시켜 이들을 강하게 연대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들 주변에는 10인 외에도 다수의 또 다른 인물들이 동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주변에서 함께 공유하던 인물로는 권필이 자신의 문집 머리에서 이안눌과 함께 四懷로 일컬었던 ‘洪春壽(1539-), 宋耆, 具容(1569-1601)’과 任鏞(1560-1611), 徐羊甲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본현(2006)의 보고에 따르면 권필은 西江의 玄石村에서 성장하였고, 이안눌은 서대문 밖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2세에 出系하여 거처가 바뀌었고, 조위한은 西江 북쪽 언덕에서 생활하였고, 임전은 龍山の 靑坡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주로 서강, 용산, 남산 등 지역에서 교유하고 가끔씩 구룡의 별업이 있는 楸子島와 그 건너편에 위치한 臺山の 別業에서 노닐었다고 한다.¹³⁾

前五子와 後五子 및 四懷의 구성원들이 함께 문예활동을 공유하였던 양상을 확인할 만한 기록이 많지 않아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여러 문헌에서 산견되는 짧은 기록들을 통해 이들의 문예 활동 모습이 꼼꼼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면, 당시 조선 문단의 다층적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하나의 단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문학사 서술도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작업의 하나로서 이 가운데前五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권필(權韞)

허균과 가장 오래 동안 교유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權韞(1569-1612)

13) 구본현, 「권필과 이안눌의 교유와 문학 활동」, 『국문학연구』 14집, 국문학회, 2006.

을 꼽을 수 있는데, 권필 역시 서얼 출신이다. 김창호(2008)는 허균과 권필에 대해 “이들은 스스로 규범체계로부터 일탈하거나 규범체계의 부적응이 이전의 일탈지향을 강화시켰다는 경로상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당대 주류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 있는 아웃사이더였다.”¹⁴⁾고 평하였다. 이는 허균과 권필의 사회적 성향을 잘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당대의 사회 규범으로 묶어 구속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허균은 권필의 문예적 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읊었다.

石洲天下士	석주 권필은 천하의 선비라
其才寔王佐	진실로 왕을 보필할 재주를 지녔으나
抱負不肯施	포부를 펴려고 하지 않고
甘爲窮谷餓	궁벽한 데서 가난함을 기꺼워하네.
爲詩透天竅	시는 천리를 깨쳤으니
絕唱有誰和	절창에 누가 화답할까?
王孟合在後	왕유와 맹호연은 응당 뒤가 되고
顏謝亦虛左	안연지와 사명운도 앞이 되지 못하네. ¹⁵⁾

권필은 잦은 사화로 인한 혼란한 환경 속에서 기울어가던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조부인 權祺가 김안로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西部 盤松坊에 거처를 정하였고, 이후 부친 權擘(1520-1593)이 士禍를 계기로 宦路를 멀리하면서 권필이 10대 시절에 다시 西江의 玄石村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으므로, 이 두 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었다.¹⁶⁾ 그의 문학적 재능만큼은 충분히 왕을 보필할 만하고 왕유와 맹호연이 앞자리를 양보해야 할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지만, 세상이 쉽게 그를 용납해주지 않아 궁벽한 골짜기에서 가난을 즐기며 굳이 자신의 포부를 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곧 타고난 재능은 천하를 경륜할 만하였으나, 현실적

14) 김창호, 「권필과 허균의 교유와 그 당대적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15) 許筠, 『惺所覆瓿稿』 卷2, 「病閑雜述·前五子詩」.

16) 김창호(2008).

굴레에 갇혀 곤궁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가 훗날 예교를 벗어나 거침없이 일탈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이런 사정에 연유한다.

至今四十年 지금까지 40년
 泥塗飽轆軻 진흙탕에서 실컷 고생하고도
 平生膠漆義 평생의 의리가 아교 같아서
 略我風流過 나의 풍류 허물을 용서하네.
 (中略)
 素期在林泉 평소 임천에 살기로 기약했으나
 不決吾眞儒 결행하지 못하는 나는 진짜 겁쟁이¹⁷⁾

허균과 권필은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현실 속에서 구속을 느껴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어울려 문예와 풍류의 공간을 탈출구로 삼았는데, 이런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서로 의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꿈꾸는 또 하나의 세계는 세상에서 물러나 임천에 은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러지도 못하였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권필은 「曉踰車嶺」¹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人生無賢愚 사람살이 잘나고 못난이 없어
 爲口長營營 먹고 사느라 늘 바쁘구나.
 處世豈免俗 살면서 어떻게 시속을 벗어나랴
 也復勞此行 나도 수고롭게 이 길을 가네.

지금의 인생살이는 잘난 자도 못난 자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생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겨를이 없는데, 자신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삶에 지친 것 같은 이런 모습은 평탄하지 못한 삶에 기인한 것이다. 권필은 정철의 실각을 계기로 출사를 단념하고 1590년대에서 1600년

17) 許筠, 『惺所覆瓿稿』 卷2, 「病閑雜述·前五子詩」.

18) 權輶, 『石洲集』 卷1, 「曉踰車嶺」.

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출사를 멀리하고 있던 불우한 벗들과 어울려 교유하였는데,¹⁹⁾ 이 무렵부터 그나마 잔잔하게 평심을 유지하고 있던 권필의 어조는 중심을 벗어나 격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부터 곧 사회적 관념으로부터 일탈하는 분방한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이안눌은 停擧당한 상태였고, 成渾의 문인이었던 趙繼韓은 스승 成渾과 鄭澈 및 黃廷彧(1532-1607) 父子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었으며, 任鏞(1560-1611)은 대과에 낙방한 후에 서인의 몰락을 탄식하였고, 成輅(1550-1616)는 애초에 출사를 단념하고서 江華와 西江 등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서인이 몰락한 당대를 개탄하고 東人과 貴戚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인 귀척을 풍자하거나 비분강개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대응 방식이었다.²⁰⁾

특히 권필의 경우 朱門甲第를 앞을 지날 때면 침을 빨곤 하였고 詩로써 창작하여 세태를 풍자하는 등 반항적인 면모를 감추지 않았다.

저는 품성이 서툰고 엉뚱하여 세상 사람들과 잘 맞지 않습니다. 朱門甲第를 지날 때면 반드시 침을 빨고, 陋巷의 蓬室을 보면 반드시 서성이고 돌아보면서 曲肱飲水하면서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 주인일까 하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매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평하는 현귀한 자를 만나면 노비처럼 비루하게 여기고, 향리에서 천대받는 任俠이나 백정을 만나면 반드시 기쁘게 사귀고 싶어 하면서 “아마도 悲歌를 부르는 慷慨한 사람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가 사람들에게 해괴하게 여겨지지만, 저 자신도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²¹⁾

이는 宋弘甫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타고난 성품이 서툰고 엉뚱한 탓에 세상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컨대 朱門甲第를 지날 때면 반드시 침을 빨는 돌발 행동을 하였고 세

19) 김창호(2008).

20) 김창호(2008).

21) 權輅, 『石洲別集』 卷2, 「答宋弘甫書」.

상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평하는 顯貴한 자를 만날 때면 반드시 노비를 대하듯이 비루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는 가슴 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顯貴들에 대한 적개심이 왜곡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꾸로 陋巷의 蓬室을 보면 반드시 서성이고 돌아보면서 曲肱飲水하면서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 주인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향리에서 천대받는 任俠이나 백정을 만나면 반가워하며 반드시 사귀고 싶어 하면서 悲歌를 부르는 慷慨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상상한다고 한 것에서도, 권필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 위치를 엿볼 수 있다. 陋巷의 蓬室에서 曲肱飲水하는 선비에 대한 동정심을 감추지 않았고, 향리에서 천대받는 任俠이나 백정을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顯貴에 대한 적개심의 또 다른 표출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권필의 이런 의식은 「鬪狗行」²²⁾이라는 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誰投與狗骨	누가 개에게 뼈다귀 던져 주었나.
群狗鬪方狠	개들 떼 지어 사납게 싸우는구나.
小者必死大者傷	작은 놈은 죽고 큰 놈은 다치니
有盜窺窬欲乘罅	도둑놈이 엿보고 그 틈을 노리도다.
主人抱膝中夜泣	주인은 무릎 꺾어 앉고 한밤에 흐느끼나니
天雨墻壞百憂集	비 내려 담장 무너지매 온갖 근심 모인다.

표면적으로는 뼈다귀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것이 그대로만 읽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납게 싸우고 있는 개의 모습도 측은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배후에서 개들을 이간하고 조종하여 더 큰 이득을 노리고 있는 악인의 존재가 보인다. 역시 부조리한 사회의 실상을 풍자하고 있는 것인데, 그 표현의 방식이 거침없고 몹시 반항적이다.

권필은 일찍이 端川의 수령으로 부임하는 이안눌을 전송하는 시에서, “나는 본성이 방탄하고 세상과 실로 소원하여 풍진 속에서 문을 닫고서

22) 權輶, 『石洲集』 卷2, 「鬪狗行」.

열흘에 하루도 나가지 않네.”²³⁾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 시절 권필은 세속과 어울리지 못하고 山野로 물러나 6,7년 동안 道學에 침잠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詩酒를 즐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였고 예전의 언행을 멈추지 못하였다.²⁴⁾

2. 이안눌(李安訥)

李安訥(1571-1637)은 李荇(1478-1534)의 증손으로 태어나 再從叔인 사헌부 감찰 李泌의 후사로 들어갔다. 李植의 從叔으로서 문장에 증조 이행의 풍도가 있다는 평을 받았다. 본관은 德水, 자는 子敏, 호는 東岳, 시호는 文惠이다. 구본현(2006)의 보고에 따르면 이필의 조부인 李芑는 윤원형과 함께 1545년에 을사사화를 일으켰던 주역으로서, 선조 즉위 이후에 모든 勳祿이 박탈되고 말았다. 이안눌의 외조부 具滄은 연산군의 외손자로서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權貴들과 결탁하는 등 불경한 행실로 평판이 좋지 않았었다. 이안눌은 이런 가계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²⁵⁾

이안눌은 16세에 시문으로 泮試에서 여러 차례 장원을 차지하였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 18세에 치룬 進士 初試에서도 수석을 차지하였고 곧이어 漢城試에서도 합격하였지만 그를 시기하던 자의 모함으로 인해 停擧되는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擧業을 그만두고 古文詞에 진력하면서 권필 등과 교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은 어려서부터 才名을 자부하다가 억울하게 욕을 당하면서 세도가 험난함을 깨닫고 더는 과거 공부에 종사하지 않고 더욱 古文詞에 힘썼다. 이때 공과 교유한 사람은 모두 당대의 才俊들과 서로 名節을 힘쓰면서 傍睨若無人하게 노

23) 權譱, 『石洲集』 卷1, 「送李子敏安訥出守端川」.

24) 權譱, 『石洲別集』 卷2, 「答宋弘甫書」.

25) 구본현, 앞의 논문.

널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監察公과 進士公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곧 왜란이 일어나 경황없는 피난 중에도 성실하게 喪制를 지키고 학문을 그만두지 않았다. 상기를 마치고 상경하여 鄭古玉, 權石洲 등과 어울려 湖山에서 술을 마시며 시문을 창작하였는데, 月汀과 五峯 등 선배 詞宗들이 모두 찾아가 忘年의 사귀움을 맺었을 정도다.²⁶⁾

이는 18세가 되던 선조 21년(1588)에 정거를 당한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안눌은 정거 이후로 출사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한동안 古文詞에 매진하면서 당대의 많은 문사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좌의정 鄭順朋의 아들인 古玉 鄭碯(1533-1603), 石洲 權鐸과 어울렸고 월정 윤근수와 오봉 이호민과도 망년의 벗이 되었다고 한다. 29세가 되던 선조 32년(1599)에 庭試에서 乙科로 합격하여 출사하기 이전까지가 대략 이 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이안눌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는 복잡하다. 文에 능하고 특히 詩에 뛰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행실이 그릇되었다는 부정적 견해도 빠지지 않는다.

李安訥은 사람됨이 깨끗하고 소탈하여 베풀어주기를 좋아하였으며 가정에서 孝友하였다. 그러나 거칠고 도량이 좁아 行事가 자못 괴이하였기 때문에 동류들이 경시하였다. 하지만 문장을 공부하여 몹시 힘이 있었으며, 시가 더욱 淸健하고 沈鬱하여 杜甫의 법을 깊이 터득하였다.²⁷⁾

성질이 거칠고 도량이 좁아서 하는 일도 괴이하였기 때문에 동류들이 경시하였다는 것이다. 앞의 기록에서 이안눌이 당대의 才俊들과 서로 傍睨若無人하게 노닐었다고 기술하였는데, 傍睨若無人의 기질도 유사한 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일 듯하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이안눌만이 아니었다. 권필 역시 이안눌과 비슷한 처지였다. 권필은

26) 李植, 『澤堂別集』 卷9, 「禮曹判書贈左贊成東嶽李公行狀」.

27) 『仁祖實錄』, 1년(1623) 3월 25일 기사.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성품이 서툰고 엉뚱하여 세상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예법을 따지는 선비들에게 몹시 배척받았다.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이 오직 네 사람이 있었으나 세상이 혼란하여 헤어진 뒤로는 생사를 알지 못한다. 이제 성대하던 지난 시절의 사귀를 생각하려니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²⁸⁾

권필이 「四懷詩并序」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과거에 네 명의 벗들과 함께 허물없이 어울리던 옛 생각에 감회가 일어나 시를 짓게 되었다고 하면서, 성대한 지난 시절의 사귀를 추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권필 역시 성품이 서툰고 엉뚱하여 세상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예법을 따지는 선비들에게 몹시 배척받았다고 고백하였다. 이안눌은 바로 이 네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엉뚱하고 괴이한 것이 이 시절 이들을 강하게 묶어준 동질감의 한 가지 코드가 아닐까 한다. 이런 이유로 권필과 이안눌은 늘 지기로서의 관계를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다.

호곡 남용익은 “이안눌이 권필을 그리워함도 두자미가 이백을 그리워하고 왕세정이 이만룡을 그리워함과 같다. 젊은 시절에 시를 지으면 권필에게 나아가 바로잡기 전까지 함부로 남에게 보이지 않았을 정도다.”²⁹⁾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권필과 이안눌이 평범한 보통의 사이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권필은 「四懷詩」에서 이 무렵의 이안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昔在漢京時	옛날에 내가 한양에 있을 때
年少尙豪毅	나이가 어려 호기를 부리고
涉世味樞機	세상살이 요령에 어두워
論詩誇斐亶	시를 평할 때도 화려함만을 높였지
苟匪子同病	동병상련하는 그대가 아니었다면

28) 權驪, 『石洲集』 卷1, 「四懷詩并序」.

29) 南龍翼, 『壺谷詩話』.

知音復能幾	지음이 몇이나 있었을까?
君才北溟羽	그대 재주는 봉새 날개 같은데
失勢困置罟	힘을 잃고 그물에 걸렸으니
鑊鄒閉塵匣	막아 보검이 낡은 상자에 갇혀
空有斗間氣	부질없이 기운만 뿜는 격이었소.
我時坐閑冷	당시에 나는 처지가 영락하여
頭角縮如蝟	고슴도치처럼 움츠리고서
孤懷靡所託	고단한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으니
蠅附得驥尾	천리마 꼬리에 붙은 파리 같았시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양 도성에서 2년의 나이 터울로 젊은 시절을 보내던 두 사람은, 이 무렵 세상살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낙척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며 지음으로 허여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후 둘의 교유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줄곧 이어졌으며, 권필의 사후 이안눌은 매년 권필의 기일에 시를 지어 스스로 위로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³⁰⁾ 권필은 이안눌을 가리켜 정의가 두터운 유일한 친구라고 하였고, 이안눌은 권필을 동심우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로 여겼다는 것이다.

3. 조위한(趙緯韓)

趙緯韓(1567-1649)은 漢陽 趙氏로 자는 持世, 호는 玄谷이다. 앞서 소개한 「漢陽俠少行」을 지은 趙繼韓의 친형이다. 趙綱은 「玄谷集敍」에서 윤근수, 최립, 황정욱 등 여러 노선생이 그를 少友로서 허여하였고 권필, 이안눌, 차천로 등이 詩社를 결성하여 더불어 연마하면서 戲笑怒罵를 함께 하였다고 한다.³¹⁾ 그와 함께 하던 벗의 무리에 허균도 빠질 수는 없다. 그는 1609년 42세에 增廣試 文科에 甲科로 급제하였다. 이때 허균

30) 구본현, 앞의 논문.

31) 趙綱, 「玄谷集敍」.

이 考官으로 참여하여 조위한의 책문을 2등에 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³²⁾ 그런데 광해군 5년(1613)에 쫓丑獄事에 연루되어 파직된 뒤로 10년 동안 坐廢되는 좌절을 겪었다. 인조반정 이후에 다시 조정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외직을 오가며 여러 관직을 거쳐 79세에 예조 참판에 이르렀다.

조위한은 성품이 恢疏하고 倜儻하며 義氣가 있고 대답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열람하지 않은 서책이 없고 莊周를 더욱 좋아하였다. 취향과 조예는 대체로 우주 밖에 있으나 몸은 도리어 속세 속에 매여 있었으니, 그의 뜻을 아는 자가 적고 모르는 자가 많다. 나와 함께 계축년(1613)의 화를 당하여 10년 동안 坐廢되었다가 일어나 臺憲이 되었으나, 다시 쫓겨나 外郡으로 나갔다. 때와 운명이 맞지 않은 것인가?³³⁾

이는 신흠이 조위한의 『현곡집』에 붙인 서문의 일부로 조위한에 대해 평하였다. 신흠이 느낀 조위한의 성품은 시원하고 기개가 있고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분야의 서적을 읽으면서도 특히 『장자』를 좋아하여 취향과 조예가 우주 밖으로 넘나들었다고 하였으니, 상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도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하였을 듯하다. 또한 과거를 급제하여 벼슬길로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번번이 화를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었으니, 환로가 순탄하지는 못하였다.

나의 벗 趙持世는 나이 40세가 되도록 급제하지 못하여 아직 성균관 유생의 업에 시달리고 있다. 나도 갈옷을 벗고 벼슬한 것이 16년인데 말단에서 머물러 여전히 조신의 붉은 관복을 입지 못했다. 우리는 이처럼 오직 그 기호가 같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도 같아서 서로 좋아하는 막역한 친구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서로 중유하여 잠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날마다 風雅

32) 許筠, 『惺所覆韻稿』 卷21, 「與趙持世 己酉十月」.

33) 申欽, 『象村稿』 卷21, 「玄谷集敘」.

를 평론하고古今을 담론하는 것을 일삼아 다시 세상일에 걸려들지 않은 것이 여러 해다.³⁴⁾

허균이 말하였듯이, 순탄하지 못한 벼슬길로 인해 이들은 도리어 더욱 막역한 사이가 되었을 수 있다. 서로 기호가 같고 함께 세상에 버림 받은 신세여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만나면 언제나 風雅를 평론하고古今을 담론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위한과 함께 어울리던 친구는 권필, 이안눌 등이다. 李景奭은 「玄谷集序」에서, 서로 막역하여 구름과 용처럼 기운이 합한 자는 권필과 이안눌이었고 賞賚하며 서로 칭찬한 자는 차천로와 차운로라고³⁵⁾ 회상하였다.

권필도 「雨中懷持世」라는 시에서 조위한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였다.

此子不易得 만나기 힘든 인물이건만
平生多苦心 평생 근심이 많구려
可憐連日雨 가련하다 매일 비 내리는데
誰念子桑琴 그대의 슬픈 곡조를 누가 알까?³⁶⁾

조위한이 다시 얻기 힘든 훌륭한 인재이지만 평생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이런 사연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평생 고독하고 애처롭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급제하여 출사한 뒤에도 생활이 여의치 않았는데, 그 이전까지도 몹시 곤궁한 생활을 하였던 듯하다. 허균은 1608년 3월 춘궁기에 월급의 반을 덜어 조위한에게 보내어주기도 하였다.³⁷⁾

事業止於斯 사업이 이 정도로 그치니
功名聊自哂 공명을 스스로 비웃네

34) 許筠, 『惺所覆頤稿』 卷5, 「送趙持世赴京序」.

35) 李景奭, 「玄谷集序」.

36) 權譚, 『石洲別集』 卷1, 「雨中懷持世」.

37) 許筠, 『惺所覆頤稿』 卷21, 「與趙持世 戊申三月」.

安得芟群小 어떻게 못 소인을 베어내어
致令王靈振 왕의 위엄을 떨치게 할까?³⁸⁾

조위한은 일찍이 선공감 역관으로서 鴨島에서 갈대를 베는 일을 감독하다가 스스로 자조하는 뜻으로 시를 지은 적이 있다. 위의 인용문은 그 일부분이다. 이 시를 접한 권필은 이에 차운하여 읊은 「趙持世가 繕工監 役官으로서 鴨島에서 갈대를 베는 일을 감독하면서 自嘲하여 지은 시에 차운함」이라는 시에서 아래와 같이 응수하였다.

富貴何足論 부귀를 논하여 무엇 하라
今古一灰燼 고금에 언제나 잿더미 될 뿐인데
何如積薪底 썩나무나 쌓으면서
白首甘吏隱 백발로 吏隱을 즐기어 어떻겠소?
來詩語不多 보낸 시는 말은 적으나
味求方覺雋 맛보고 좋음을 알았네.
古人豈難到 고인을 좇기가 뭐 어렵다고
世俗那妨哂 세속은 헐뜯고 비웃는가?
擲地已金聲 지으면 벌써 金聲이 울리니
期君終玉振 玉振을 이루리라 기대하네.³⁹⁾

이처럼 조위한은 허균, 권필, 이안눌, 차천로 등과 어울려 선조 시대 말년의 조선 문단에 분명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

4. 허적(許稹)

허균이 서열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굴곡을 겪었는데 허균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몇몇 뛰어난 문인들도 서열이었다. 허균의 재종형

38) 權輶, 『石洲集』 卷1, 「次韻趙持世以繕工監役官觀刈葦於鴨島自嘲之作·附元韻」.

39) 權輶, 『石洲集』 卷1, 「次韻趙持世以繕工監役官觀刈葦於鴨島自嘲之作」.

으로 前五子에 포함된 許禱의 경우도 서얼이다. 許禱(1563-1640)의 자는 子賀이고, 호는 水色, 尙古齋이며, 관향은 陽川이다. 許昉의 서자로서 35세 되던 1597년에 별시 문과의 을과로 합격하였다. 하지만 서자로 태어난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더 이상 현달하지 못한 채 지방에서 判官과 찰방 등의 관직을 지내고 내직으로는 6부 낭관을 전전하다가 성균관 사예가 되었다. 66세 되던 1628년 1월에 柳孝立 등이 선조의 7남 仁城君 李珣을 추대하려는 음모를 고변한 공을 인정받아 3월에 영사공신 1등에 녹훈되고 양릉군에 봉해졌다. 이후에 軍자감 正 등을 지내고 70세 이후에 종묘 제조를 거쳐 한성부 좌윤에 이르렀다. 이렇게 60세 이후에 정치적 상황에 응하여 지위가 상승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문과에 급제하고서도 말단의 관직을 오가는 불운한 처지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적은 14세 때(1576)에 당숙인 허균의 부친 草堂 許曄을 찾아가 3년간 수학한 적이 있다.⁴⁰⁾ 허적은 허균의 再從兄으로 8살 연상인데, 이후로 자주 허균의 집을 오가면서 둘 사이의 우의가 점차 두터워질 수 있었다. 허균은 허적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였다.

自保千古希	친고 드문 재주 간직하고서
任遭一時軋	한때 곤역을 당한들 어찌리.
我生賴孺簾	우리 형제에 의지할 뿐이니
群咻恣嘲哂	군흉들이 멋대로 시끄럽게 비방하네.
遙睇九萬鵬	멀리 구만리 봉새를 보라
逸翮寧長緞	날쌔 날개를 어찌 오래 접어두라.

허적 역시 허균과 마찬가지로 서자 신분으로 태어나 능력보다 출사가 더딘 불운을 겪었지만, 이 때문인지 시문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허균의 평에 따르면 허적은 藝林에서 깃발 세우고 일가를 이룰 만하였으며, 이미 문예의 마당에서 앞질러 달려 나갈 준비도 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군흉들에 의해 곤역을 당

40) 許禱, 『水色集』 卷7, 「祭岳麓堂兄文」.

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봉새가 구만리 하늘 위로 날아오르듯이 날쌔 날개를 휘저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면서 형제로서의 강한 연대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위한(1567-1649)은 광해군 시절인 1615년 즈음에 都事로서 함경도로 부임하는 허적을 보내는 자리에서 읊은 「送許都事子賀」⁴¹⁾라는 시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

榮辱升沈孰主張	영욕과 升沈을 누가 주장하나
嶽崎世路劇羊腸	험한 세상 길 羊腸처럼 심하구나.
蓬閭原憲飢無賴	쑥대 집의 原憲은 기댈 곳 없이 굶는데
花底秦宮樂未央	화려한 秦宮에는 환락이 끝없어라.
豈獨文章憎命達	유독 문장만 命達을 미워하라
須知孤直致身殃	孤直이 몸의 재앙을 부른다오.
吾儕事業還如此	우리들 사업이 오히려 이러하니
出佐巡宣且不妨	나가서 巡宣을 돕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

이때는 허적이 과거에 급제하고 8년 정도가 흐른 40대 초반의 시절이다. 허적이 지닌 재능을 본다면 임금의 지우를 입고 조종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마땅하겠으나, 마치 양의 창자처럼 세상길이 험난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허적을 공자의 제자 원헌에 견주고 있다.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진대, 오히려 도를 실천하며 만족하는 원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적응하기를 기대해보지만, 그러면서도 부조리한 세태의 극심한 모순을 직시하면서 불우한 삶의 불안한 향방에 대한 우려 섞인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순간에 허적이 선택했던 삶의 방향성은 문학에의 침잠이었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文章에 종사한 것이 도리어 榮達을 막고 고고하고 정직한 삶이 도리어 재앙을 불렀다는 한탄 섞인 조위한의 지적

41) 趙緯韓, 『玄谷集』 卷5, 「送許都事子賀[二首]」.

속에 허적의 고층이 엿보인다. 이안눌도 이에 대해 「奉送許子賀都事之咸鏡道」라는 시에서, “靑海에서 小兒로 성명을 전하고, 高山에서 老吏로 風姿를 알리네. 십년 동안 여전히 班序를 굽히니, 독서 천 권도 평생 굽주림을 못 면하네.”⁴²⁾라고 한탄하였다. 십년 세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말단의 지방관을 전전하고 있으니 독서 천 권의 공부를 하고도 굽주림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앞의 시에서 조위한은 허적의 불운이 뛰어난 문장 솜씨와 고고하고 정직한 성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고, 이안눌도 허적이 천권의 독서를 하고서도 불운을 피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광해군 시기 이전 무렵까지 허적은 불운한 인생의 역경에서 벗어나 위안으로 삼았던 것이 문예로의 침잠이었던 것 같다. 자신의 文友들과 어울려 문학에 몰입하고, 이로써 상처받은 자존감이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을지도 모른다.

5. 이재영(李再榮)

李再榮(1567-1623)은 허균의 어릴 적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허적, 권필과 함께 서얼로서 순탄하지 못한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 방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⁴³⁾ 본관은 永川, 자는 汝仁이다. 부친 李選은 이조판서에 올랐던 인물이나, 노비 鶴舍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그였으므로 신분적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인조실록』에는 이재영이 詩人 李達이 간통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말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⁴⁴⁾

42) 李安訥, 『東岳集』 卷23, 「拾遺錄下·奉送許子賀都事之咸鏡道君曾爲北靑判官高山察訪」.

43) 김창호, 「李再榮과 『藝苑詩話』」, 『한자한문교육』 24호, 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44) 『仁祖實錄』, 1년(1623) 3월 18일 기사.

그는 비록 천첩의 자식이었지만 재능이 뛰어나 선조 32년(1599년) 庭試에서 甲科 1등으로 급제한 적이 있다. 이때 왜적의 수급을 벤 자를 대상으로 훈련원에서 武科 殿試를 시행하여 許通한 權升慶 등 서열 2백 6인을 합격시켰고, 또 유생을 대상으로 時御所에서 시험을 보여 許通한 李再榮 등 서열 10인을 합격시킨 것이었다. 다만 이때 천한 어머니의 자식이 수석을 차지하였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削科되는 불운을 겪고 말았다.

계미년(1583)에 소인들이 법을 어지럽혀 許通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로부터 서열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하는 자가 많아졌다. 임진년 난리에 기강이 크게 무너져 한 首級을 벤 자는 下賤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과거 응시를 허용하였다. 이른바 수급을 배었다는 것은 邊將의 허위 보고에서 나온 것이 많아서, 도망하고 반역한 노예들도 모두 버젓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때에 이재영이 賤倡의 아들로서 龍榜의 수석을 차지하여 先王의 名分이 하루아침에 실추되었으니, 어찌 깊이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⁴⁵⁾

이는 『선조실록』 1599년 3월 17일 기사에 달린 史評이다. 이재영이 정사에서 장원을 차지한 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인데, 이로 인해 先王의 名分이 하루아침에 실추되었다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틀 뒤인 3월 19일에는 사헌부에서 “급제한 李再榮은 사사노비 鶴今の 자식인데, 학금은 賤倡 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로서 모든 백성들이 천시하여 더럽게 여깁니다.”⁴⁶⁾라고 아뢰면서 이재영의 합격을 취소할 것을 강한 어조로 주장하여 결국 삭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선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재영이 그 이전에 監試의 초시에서 합격하였을 때에도 臺官의 論啓로 인해 削去되었었다.⁴⁷⁾

이후 이재영은 뛰어난 文才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광해군 시기에 이

45) 『宣祖實錄』, 32년(1599) 3월 17일 기사.

46) 『宣祖實錄』, 32년(1599) 3월 19일 기사.

47) 『宣祖實錄』, 32년(1599) 3월 19일 기사.

이첨의 정치적 지원 세력으로 자처하였다. 이는 허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한 것이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광해군 7년(1615 을묘) 알성사에서 乙科 1등으로 급제하여 묵은 한을 풀 수 있었다.⁴⁸⁾ 하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불행한 최후를 맞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광해군 시기에 잠시 출사의 길이 트이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그는 세상살이의 답답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재영은 평생 허균, 권필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였고 늘 시문을 주고받으며 함께 하였던 동지이다.

내가 큰 고을의 수령이 되었고 마침 자네의 거처와 가까우니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시게. 내가 봉급의 절반으로 대접할 것이니 결코 굶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나와 처지가 다르지만 취향이 같네. 제주도 나의 열 배가 되는데 세상에서 버려짐이 나보다 심하니, 내가 늘 기가 막히는 이유라네. 나는 운수가 비록 기구해도 여러 차례 수령을 지내 연명할 만하네만, 자네는 사방을 떠돌며 입에 풀칠하고 있으니 모두 우리 책임일세. 밥상을 대하면 늘 부끄러워 음식을 삼킬 수 없으니, 서둘러 오시게. 이로 인해 비방을 받아도 개의치 않을 것이네.⁴⁹⁾

이는 허균이 선조 말년(1608) 1월에 이재영에게 보낸 편지이다. 허균은 1개월 전에 해당하는 1607년 12월 9일에 公州 牧使에 제수되었으니,⁵⁰⁾ 아마도 부임한 직후에 곧바로 이재영에게 위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때까지 이재영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고 할 만큼 낙척한 처지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허균은 언제나 이재영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어려서부터 서로 세상을 달리할 때까지도 늘 함께 하였다. 처지가 다르다고 말했으나 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한 것일 뿐이다. 애초에 서로의 사회적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터에 또 서로 지향하는 바가

48) 『宣祖實錄』, 32년(1599) 3월 19일 기사.

49) 許筠, 『惺所覆韻稿』 卷21, 「與李汝仁 戊申正月」.

50) 『宣祖實錄』, 40년(1607) 12월 9일 기사.

같이 일찍부터 함께 어울렸던 사이이다. 게다가 서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한 문학적 재능을 갖추고 있었기에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권필은 일찍이 이재영에 대해 “그대는 屈宋의 재주가 있어, 詞藻가 哀郢을 뛰어넘네.”⁵¹⁾라고 칭찬하였다.

이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하던 이재영을 세상으로 불러낸 것은 허균이었다.

내가 다시 이번 곁음에 나서면 10년에 세 차례 幕下에 있는 것이니, 어찌 지루하지 않겠소. 使相이 꼭 자네를 얻으려 하니, 자네가 나오고 싶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세상에 뜻이 있다면 나오기를 바라네. 書記로서 함께 따라가면 즐거울 것이네. 西關의 천리 길에서 옛날 노닐던 곳을 다시 밟아보는 것도 유쾌한 일일 것이네. 국상 중이라서 聲色을 즐길 수는 없으나 여관의 푸른 등불 아래서 향을 피우고 마주 앉아 古今을 담론하고 詩歌를 지으면서 三春을 보내면 나쁘지 않을 것이네.⁵²⁾

허균은 1691년 1월 遠接使 李尙毅의 추천으로 원접사 종사관이 되었는데, 이재영이 동행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후 이재영은 허균을 도와 이이첨의 측근에서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 이 역시 허균의 뜻에 따른 것이었을 듯하다. 결국 세상일에서는 공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나 이들이 평생 함께 어울려 고금을 담론하고 시문을 읊조리며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염원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허균은 「前五子詩」에서 이재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我愛藐丈夫	내가 이 사내를 사랑하니
詞華自童丱	어려서부터 시문이 빛나지
貫穿百家語	백가의 말을 꿰뚫어

51) 權譚, 『石洲別集』 卷1, 「次汝仁秋日感懷韻」.

52) 許筠, 『惺所覆韻稿』 卷21, 「與李汝仁 己酉正月」.

嗜之如芻豢 추환처럼 즐긴다네.
 (中略)
 詩壘值交鋒 시를 다투는 자가 있으면
 吾爲君左袒 내가 그대 위해 左袒하리니
 笑者任滿國 온 나라가 그대를 비웃어도
 其實自難贖 진실은 감추기 어려운 법
 下邑困桂玉 향읍에서 의식이 곤궁하고
 危途飽憂歎 危途에서 憂歎에 시달리며
 寂寞同病客 病이 같은 고단한 벗이
 天涯歲將晏 하늘 끝에서 한해가 보내네.⁵³⁾

허균은 「前五子詩」 서문에서 이들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던 인물이 이재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락을 함께 하였다. 곧 두 사람을 포함한 前五子の 구성원들은 문예 활동에 있어서 뿐 아니라 대체로 삶의 행적까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모두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까지 불우한 삶을 이어가다가 광해군 시대에 환로에 들어서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순탄치 못하여 결국 정치적으로 실각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최후를 맞이하였다.

권필은 「有歎」이라는 시에서 이러한 처지를 이렇게 토로하였다.

兵戈今未定 전란이 멈추지 않은 지금
 何處問通津 누구에게 나루터를 묻나
 地下多新鬼 땅 속에 새 귀신 많아지고
 尊前少故人 술잔 앞에 옛 친구 줄어드네.
 衰年聊隱几 노쇠한 몸은 안석에 기대어
 浮世獨沾巾 덧없는 세상에 홀로 눈물 흘리네.
 閉戶風塵際 풍진 속에서 문을 닫고서
 寥寥又一春 쓸쓸하게 다시 봄을 보내네.⁵⁴⁾

53) 許筠, 『惺所覆韻稿』 卷2, 「病閑雜述·前五子詩」.

이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허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를 중심으로 권필, 이재영, 이안눌, 허적, 조위한 등이 서로 동지가 되어 최후까지 외면하지 않고 이끌고 밀어주었던 정황이 여러 기록에 나타나있다. 이들은 문예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일류로 손꼽혔으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정치에 있어서는 결국 이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어쩔 수 없이 이로 인한 좌절과 아픔을 문학으로 해소하게 됨으로써 매우 독특한 문학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까지 한양 도성 안에서 역동적 활력을 보여주며 문예 활동을 하였던 허균과 그의 주변에서 활동하던 前五子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들의 문예 활동이 이 시기 한양 도성의 문단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대의 역동적 문예 활동 양상의 한 단면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적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기존의 문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기성세대의 인적 구성과는 달리 서얼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의 아웃사이드들끼리 동인 집단을 구성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존의 관념에 저항하면서 풍류와 일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예사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닌다.

본고가 이들의 문예 활동 전모를 밝히는 데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지만, 되도록 이들 사이의 관계 구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애초에 의도한 만큼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향후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54) 權輿, 『石洲集』卷3, 「有歎」.

<參考 文獻>

權 譚, 『石洲集』
南龍翼, 『壺谷詩話』
申 欽, 『象村稿』
尹國馨, 『甲辰漫錄』
李 植, 『澤堂別集』
李安訥, 『東岳集』
曹友仁, 『頤齋集』
趙纘韓, 『玄洲集』
趙緯韓, 『玄谷集』
許 筠, 『惺所覆瓿稿』
許 禔, 『水色集』
實錄廳, 『光海君日記』
實錄廳, 『宣祖實錄』
實錄廳, 『仁祖實錄』

구본현, 「권필과 이안눌의 교유와 문학 활동」, 『국문학연구』 14집, 국문학회, 2006.
김창호, 「권필과 허균의 교유와 그 당대적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 「李再榮과 『藝苑詩話』」, 『한자한문교육』 24호, 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임형택, 「18, 19세기 예술사의 성격」,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 「예인 및 시정의 모습들」, 『이조시대서사시』, 창작과비평사, 2013.

Abstract

*Changes of the Phases of the Times during the later 16th Century
and Literary Aesthetics of Deviation / Shin Young Ju**

This paper looked into the growth of the literary atmosphere in the castle town of Hanyang (capital city) during the King Seonjo and into Jeon O-ja among the literary coteries of Heo Gyun. Although their activity may not represent the literary circles during this period, it is obvious that their activity demonstrated well the characteristic aspect of the pattern of dynamic literary activity at that time. The group showed that unlike the composition of persons who were composed of existing literary circles, outsiders who were mainly sons from concubines during that period formed a group, and enjoyed the appreciation of the arts and deviation while resisting existing notions without losing their identities. In this regard, it has a value of literary history. Although the paper did not unearth the pattern of their activity clearly, it is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a foundation for active follow-up research.

【Key words】 deviation(逸脫), Heo Gyun(許筠), Gwon Pil(權驛), Yi An-nul(李安訥), Jo wi-han(趙緯韓)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6일, 게재확정일 : 12월 9일

* A Professor of Sungshin Women's Univ. / zuowang@hanmail.net